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건설된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를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새로 건설된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를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먼저 미래상점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 마련해주신 미래상점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어리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2012년 1월 몸소 상점을 찾으시고 위대한 장군님을 상점에 모시지 못한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난다고, 장군님의 념원대로 상점운영을 잘하자고 하시면서 상점의 이름을 《미래상점》으로 명명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미래상점이 본래보다 더 크면서도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이 철저히 구현된 현대적인 상업봉사기지, 우리 나라 상업봉사부문의 본보기로 꾸려짐으로써 상점에 어리여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더 잘 받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해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미래상



점을 돌아보시면서 봉사활동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매장들마다에 우리가 만든 화장품, 일용품, 전자제품, 식료품을 비롯한 갖가지 질좋은 상품들이 짝 차있는데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고 환하게 웃으시었다.

상점은 하나의 문화생활공간인것만큼 상품진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미래상점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것은 상품진열을 실용적이면서도 예술적으로 잘한것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당의 의도에 맞게 미래상점을 상업봉사기지의 본보기답게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봉사기지를 이렇게 하나 하나 늘여가니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미래상점의 일군들과 봉사자들은 인민들의 요구가 곧 봉사활동의 기준이라는 관점밑에 손님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봉사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해 아글라글 노력하며 선진적인 봉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수요가 높은 상품들을 떨구지 않고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일떠선 미래상점이 정말 멋있다고 하시면서 운영준비를 완벽하게 갖춘것만큼 하루빨

리 상점문을 열어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론 인민들도 찾아와 마음껏 상품을 사가도록 하게 하라고 지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이날 새로 건설된 종합봉사기지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미래상점과 대칭되게 현대적인 급양 및 편의봉사시설 등을 갖춘 종합적이며 다기능적인 봉사기지를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특색있게 꾸려진 식사실들과 남녀목욕탕, 물놀이장, 리발실, 미용실 등 봉사기지의 곳곳을 돌아보시고 건축형식에 있어서나 시공의 질에 있어서 나무랄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운영준비를 잘하였다가 태양절을 맞으며 문을 열라고 지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의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설계와 시공을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정말 잘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설계와 시공을 맡아 진행한 단위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를 운영하면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일군들과 봉사자들이 인민의 총복이라는 자각을 안고 봉사활동을 잘해나감으로써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를 우리 나라 봉사부문에 제일 모범적인 단위로 되게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신흥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신흥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공장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인사를 나누시고 새로 개건한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신흥기계공장에서 혁명사적교양실을 통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한 교양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진행하여 공장로동계급들이 자기들을 것처럼 사랑하고 내세워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경제강국건설의 개척자, 척후병들답게 높은 기계설비생산실적으로써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충정다해 관철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립직장, 가공직장, 단조직장 등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새 제품개발 및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들이 당에서 준 과업대로 성능이 높은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었다.

공장에서 만든 능률이 높은 기계설비들이 정말로 마음에 든다고,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도입한 결과 현실에서 커다란 이이 나타날수 있게 제품의 질이 훨씬 높아졌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공장에서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여러종의 다기능화된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기계공업발전에서 중요한것은 교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공장에서는 기계설비들에 대한 인민경제 여러 부분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맡겨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뿐만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세계적수준을 돌파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경제강국건설에서 신흥기계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 기계공업부문을 선도해나갈수 있도록 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현대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전반적인 생산공정과 경영활동의 현대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데 대한 문제, 현대화전망계획을 바로세우고 선후차를 명백히 가르며 핵심공정들부터 일신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할수 있도록 과학기술보급기지를 잘 꾸릴데 대한 문제, 로동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등 공장을 일신시키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신흥의 로동계급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 뚫고 헤치며 전세대들의 굴함없는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자기들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중의 양양된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기 위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를 힘있게 울려 그들이 총정의 70일전투철야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도록 적극 고무추동함으로써 자랑스러운 위훈이 기록된 전투기록장을 안고 당 제7차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서게 하라고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본사기자

나라와 민족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경모심이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는 4월이다.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는 적대세력의 도전에 끄떡없는 공화국의 현실은 일찌기 민족번영의 장쾌를 내다보시고 강력한 국가건설의 기초를 마련하고 역세계 대신 어버이수령님의 선견지명의 예지와 평도의 비범성을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빛나는 과거는 오늘의 밑천이라는 말이 있다. 한평생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기치높이 자력, 자강의 원칙을 견지하고 철저히 구현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업적과 귀중한 유산은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이다.

그이께서는 시종일관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견지하시였다.

세계가 미국에 의한 전쟁으로 피해를 본 조선의 파괴상을 두고 《경》이라고 한것처럼 전후수기는 말그대로 령상태였다. 령은 말그대로 기초도 기둥도 없고 싹도 없는 상태이다. 한토막의 강재, 한줌의 세멘트, 한W의 전기도

귀하던 것처럼 엄혹한 때였지만 수령님께서 통합경제를 운운한 《예브》에서 기계도 받아가고 전기도 받아가고 거기서 주는 지표나 생산하라

고 하는 대국주의자들의 권유와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시고 자립경제로선을 확고히 고수하시였다.

우리 나라가 기계공업이 없는 조건에서 국제분업에 참가한다면 《예브》성원국들에 원료나 대주어야 할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는 빈굴밖에 남는것이 없게 되고 밤낮 다른 나라에 빈족박을 차고 빌러다니게 될것이다. 우리가 갈길은 우리가 안다.

수령님의 대답은 이렇게 결연하시였다.

외자에 명줄을 건 경제, 수출주도형, 자국수요형 등 나라마다 경제전략과 공업발전방식은 각각이지만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경제는 어느때고 바람앞에 선 등불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의존하거나 예속되지 않는 경제, 자기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고 제발로 걸어 나가는 균형적이고 다방면적이며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공업구조를 완비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이 어버이수령님의 구상이고 결심이고 의지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밑에 공화국은 그 어떤 고전의지만 수령님께서 통합경제를 따르거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모방하여 건설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독자적으로 자기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과 자원에 의거하는 자립경제를 건설하였기에 장기간에 걸치는 적대세력의 악랄하고 끈질긴 제재와 봉쇄에도 끄떡없이 상승일로를 걸어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국이 유엔을 사족하여 조선의 《핵문제》를 구실로 제재를 압박수단으로 리용하려 할 때에도 마음대로 하라, 우리는 제재를 받는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재를 받으며 살아왔지 제재를 받지 않은적이 한번도 없다, 우리 나라에 미국도 제재를 가하였고 일본도 제재를 가하였고 그밖의 나라들도 제재를 가하였다, 지금까지 제재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벌임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제재를 더 받는다고 못살아갈줄 아는가고 하시며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선견지명의 예지와 비범한 령도로 마련하신 부강조국건설의 굳건한 토대가 있었기에 공화국은 세계사회의시장의 붕괴와 련이은 자연재해, 극도에 달한 제국주의세력의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조금도 끄떡하지 않고 자력자강으로 고난의 행군도 승리적으로 이겨내고 강성국가건설의 장엄한 포성을 울릴수 있었다.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주체철학을 하여야 한다

고 하시며 야금공업의 주체화, 국산화실현에 기울으신 수령님의 유훈대로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였고 주체섬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속초고전력전기로에 의한 강철생산방법을 개발하였고 고성능CNC기계설비들도 마음먹은대로 개발하여 대량생산하게 되었다.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당당히 오르고 국산화된 비행기, 현대적인 지하전동차도 새로 만들어냈다.

기초가 반석같은 집은 무너지지 않으며 아름답디거룩은 광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오늘 적대세력이 《구멍없는 제재》를 운운하며 수다한 제재항목을 짜내며 목조르기하여 질식시키고자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지만 공화국은 조금도 끄떡없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강성국가로 도약하는 공화국의 앞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는것이다.

제재를 하겠으면 하라. 우리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가며 반드시 최후승리를 안아올것이다.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꽃피는 이 4월, 승리의 새봄을 맞으며 터치는 배심든 단한 선언이다.

손승숙

세기를 이어오는 조미대결전에서 승자는 언제나 조선이고 패자는 미국이 되군 한 자랑스런 전통, 이 력사의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는 또 한분의 장군이 오늘 공화국을 이끌고계신다.

그이는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그이는 문무를 겸비하시고 모든 전범에 능통하신 천하제일명장, 일단 결심하시면 벼락같은 타격전으로 백승을 떨치시는 공격형의 령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을 조직지도하시면서 우리는 미제가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대응해줄수 있으며 상용무력에 의한 전쟁, 핵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되어있다 고 하시였다.

이 지구상에 《유일초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핵전쟁까지 할 자신이 있다고 당당히 말하며 맞서는 나라가 언제 어디에 또 있었던가.

이것은 천리해안의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전략전술, 뛰어난 령군술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백두령장만이 내리실수 있는 단호한 결심이고 선언이다.

남조선의 어느 한 인터넷출판물은 《김정은최고사령관은 결심이 단호하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기질을 가지고있다고 한다. 결심하면 주저할줄 모르고 한번 타격하면 불바다로 만드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의 기질을 쉽게 봐서는 안된다.》고 전하였었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의 자위적인 수소탄시험과 인공위성발사를 결코하며 최후의 핵탄두를 꺼내들고 활약하며 전무력까지 끌어들이며 화약내풍기는 전쟁연습을 벌려놓고 이 땅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고있다.

그러나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고 미국은 자기들이 맞고있는 상대가 누구이고 북침전쟁소동이 얼마나 무모한짓인가를 아직도 잘 모르고있다.

공화국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단순히 적대세력의 침공을 막아내고 짓부시는데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침략의 본거지를 짓밟개버리고 이 세상에서 악의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낼 철의 의지를 지니신 공격형의 령장이다.

그이께서는 얼마전 핵무기병기화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핵선제타격권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고, 미제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핵으로 덮치려할 때에는 주저없이 핵으로 먼저 냅다칠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결심은 곧 실천이다.

미제가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공화국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악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고 세기를 이어오는 조미대결전에 종지부를 찍게 될것이다.

김광익

하나의 무기를 개발하여도

지난 2월 새로 개발된 반공유도무기시험사격때였다. 그날 현지에서 경량화, 정밀화된 유도무기의 최종시험사격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 무기가 사거리가 길며 명중성이 높고 장갑관통능력과 파괴력이 좋은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우리 나라 현실에 맞는 주체무기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국방과학부문에

자력자강의 힘으로

자강력의 참뜻을 새겨주시며

지난해 10월 지하전동차가 새로 개발되었을 때였다. 현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현대적인 지하전동차를 개발생산하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형태와 색깔, 기술적특성, 의장품에 이르기까지 전동차의 구조와 성능, 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을 비롯한 개발자들이 자력갱생

불변의 진리, 승리의 길 (1)

나라마다 진보와 발전을 위한 제 나름의 길이 있다. 그로정도에 해당 국가와 인민의 존망이 달려있다. 우리 공화국의 강력한 국가건설전략은 그 어떤 기준리론이나 공식에도 없는 독창적인 자주, 선군, 사회주의이다.

자위의 핵강국, 자립의 위성강국지위에 확고히 선 조선의 국력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로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1. 자주 의 로선으로

공화국이 걸어온 자랑찬 승리의 길우에는 언제나 자주 의 기치가 휘날리고있다. 자주는 우리 민족의 영원한 생명이다. 인민의 운명개척과 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과 자기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독자성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이 공화국의 일관한 로선이다.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민족자존의 정신, 자력갱생의 힘으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부강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여야 한다는것이 어버이수령님의 투철한 정치신념, 일관한 령도원칙이였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고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된다 수령님의 교시는 민족 운명개척의 첩리가 담긴 명언중의 명언이다.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면 우리 당의 사상이 되고 로선이 되고 정책이 된다고 하시며 인민의 리익을 반영한 로선과 정책

을 세우시고 인민의 힘,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부강조국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수령님이시였다. 언젠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모란봉극장과 천리마동상, 인민대학습당을 보면 우리 조국의 력사를 알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 건축물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건설되고 그 양상도 서로 각각이다. 그러나 그 창조물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해방후 빈터우에서, 전후 폐허우에서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양양기가 펼쳐지던 그 시기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자주의 기치높이 공화국이 걸어온 자력갱생의 력사를 그대로 반증하고있다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자주의 신념과 의지는 그대로 위대한 장군님의 신조였고 령도원칙이였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라, 우리 식대로 투쟁하라, 우리 식대로 창조하라 라는 주체의 기치높이 자주적원칙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고 실현하도록 하신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실천을 통하여 자주는 력사의 정의이고 혁명의 승리라는것을 확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공화국이 걸어온 전 력사를 하나로 관통하는것은 자력갱생이다.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한치의 드립도 없이 철저히 구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공화국의 지위와 존엄은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병진로선은 강성번영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현명하고 정당한 자주의 로선이며 1월18일기계종합공장, 금집체육인종합식료공장, 평양메기공장과 같은 산업시설들과 생산기지들도 국산화실현을 사회주의수호전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이다. 100% 국산화된 인공지구위성들과 비행기, 지하전동차에 이르기까지 국력을 과시하는 모든 실체들은 단 한치의 편차도, 한결음의 드립도 없이 걸어온 자주의 길, 자립의 길에서 태어난 자랑찬 결과물들이다.

전민이 자주, 자강, 자립의 힘의 원천인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높은 애국충정을 발휘하여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서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의도이다.

남보다 앞서면 강자가 되고 뒤떨어지면 약자로 밀려나는 국력경쟁의 시대인 오늘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들고나가는 길이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를 앞서나가는 길이며 강성부흥의 지름길이라든지 공화국은 기적적이고 비약적인 빛나는 현실로 보여주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병진의 만리마 라고 승리를 앞당겨갑시다》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21세기의 새로운 병진퇴성이 울려 퍼지던 그날로부터 3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길지는 않지만 그 3년은 병진의 풍성한 결실을 커다란 환희속에 받아안고 그 승리를 확신으로 새겨안은 참으로 긍지높은 날이었습니

다. 우리 조국이 병진의 첫걸음을 떠난 년대에 통일의 길에 나서 남다른 인생체험을 해온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병진의 길에 펼쳐지는 조국의 격동적인 현실은 접할수록 가슴을 세찬 걱정으로 설레게 합니다.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리치고싶어 인생만년에 무딘 붓을 들었습니다.

1

지심깊이 뿌리박고 역센 줄기를 뻗친 거목은 모진 광풍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병진으로 강국의 위용떨치는 우리 조국의 모습은 이 진리를 새삼 되새기게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2013년 3월전원회의소식을 접하던 때의 충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시하시고 철저히 구현해오신 독창적인 경제국방병진로선을 계승하고 심화발전시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내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담대무쌍한 혁명적결단, 애민애족의 장쾌한 선언에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누구나 무릎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세기 처음으로 병진로선이 제시되던 때를 감회깊이 되새겨보았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조국이 남달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병진의 길을 택하고 장장 반세기이상 견지해온것은 력사의 기적입니다.

막대한 준비지출이 정상적인 발전의 길을 걷는 부유한 나라들에조차 만회하기 힘든 출혈로 된다는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경제발전력사가 짧고 경제규모가 크지 않았으며 더우기 오랜 세월 제국주의의 침략위협과 봉쇄속에 살아오는 우리 나라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 같이 밀고나간다는것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교시가 참으로 의미심장하였습니다.

병진로선은 경제건설에 몇%, 국방건설에 몇%를 돌리는 실무적문제와 아니라 미래의 전쟁책동에 대처하는 조선혁명가들의 립장과 본체에 대한 원칙적문제이다. 경제건설도 100%, 국방건설도 100% 하는 원칙에서 밀고나가야 한다.

아버이수령님의 이 교시를 자자구구 새기면 병진의 참뜻과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한마디로 병진로선은 강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라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슬하에서 투철한 자주적신념을 배우고 실천에서 다져온 우리 인민이기에 미제국주의라는 강적과 맞서 스스로 강해져 이기는 병진의 길을 택하였고 이런 신념과 의지에 바탕한 견인불발의 힘, 자강력으로 병진의 기적적로정을 자랑스럽게 이어올수 있었던것입니다.

자강력은 자기 운명개척의 힘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역세계 전진하게 하는 생명소입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이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험하였습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0.75명 판속의 살아있는 주검》으로 만들고 수십년 세월 모진 육체적고통을 가하며 우

리의 목숨자체를 없애버려려고 발악하였습니다. 여기서 살아남고 자신을 지키는 길은 자기자신을 믿고 스스로 강해지는 길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당과 수령이 안겨준 가장 위력한 신념과 의지의 힘으로 파썸교형리들과 같은 정신적약자들을 압도하고 승리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제가 남조선당국에 체포되어 몇해만에 《푸에블로》호사건이 터지고 그후에도 《EC-121》간첩비행기격추사건, 판문점사건 등 주요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들이 시기와 형태에서는 각각이지만 그 결말은 하나였으니 매번 미국이 조선에 항복하는것으로 마무리되었다는것입니다. 이 통쾌한 무혈승전도 자력자강으로 다진 막강한 국력의 안받침 없이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강력이 위대한것은 그것이 일개 개인이나 집단의 생존방식, 투쟁전략이 아니라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인민대중의 의지와 힘이라는데 있습니다.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가 뿔어올리는 자강의 무한대한 위력, 이것을 근간으로 하여 세상을 경탄시키는 병진의 강국이 태어난것입니다.

그 길에 새겨진 강성번영시간표를 더듬어보면 실로 경이로움 그자체입니다.

불과 14년만에 완수된 사회주의공업화, 자주, 자립, 자위의 주체강국건설, 20세기말 세계정치의 대동란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보루로 더 높이 솟은 선군의 우리 조국...

더욱 긍지높은것은 위성과 핵보유의 거창한 대업이 쌍으로 이루어진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같으면 험기를 들고도 남았을 미국의 강권에 초강경으로 맞서 핵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르고 위성발사국의 위용을 과시한것이야말로 기적중의 기적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이를 두고 온갖 험담과 시비중상을 일삼고있지만 그야말로 달밤에 짓는 개소리입니다. 그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도 과감히 뚫고 헤치며 최강의 과학기술력과 경제적잠재력, 국방력을 모두 지니고 강성도 번영도 다 이루자는것이 우리 인민의 의지이고 병진의 본때입니다.

이 력사의 큰변을 안아오신분이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강성을 바라는 인민의 그 세기적념원과 리상을 이루어주시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모든것을 다 바친 헌신의 사연을 우리는 지금도 눈물속에 외웁니다. 그 자욱이 없었다면 살아버리기조차 힘든 터전에서 기적적으로 자라난 병진의 아름다리나무에 최상의 열매들까지 주렁진 경이적화폭을 어찌 상상할수 있었겠습니까.

경건히 옷깃 여미고 삼가 새겨보는 김정일애국주의, 이 위대한 애국헌신의 세계가 주체위성과 핵보유라는 병진의 위대한 기념비를 만들어올렸다고 생각하니 장군님의 만고절세의 업적에 걱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이 핵을 가지게 된것은 병진의 최후승리를 기약해주는 대사변이 아닐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1960년대의 첫 병진포성으로 대조선적대시를 판진으로 하는 미국의 세계제패전략과 조선의 병진전략과의 치렬한 대결이 막을 올렸고 1990년대에 그것이 전면적인

조미핵대결로 전개되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핵을 세계지배전략실현의 기본수단으로 삼고있는 미국이 령전종식이후 우리 공화국을 침략과 압살의 주된 대상으로 정하고 《북핵》소동을 일으키며 정면도전을 걸어왔던것입니다.

그 초기에 미국과의 대결에서 조선의 승리를 내다본 사람들은 남쪽에 얼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날수록 사태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번져왔습니다.

6.15의 덕으로 조국송환을 앞두고 있던 어느날 남조선 《조선일보》의 한 기자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북을 상대로 핵대결을 건 것이 참으로 만회할수 없는 차중수였다, 핵을 놓고 벌어지는 북미전쟁은 점점 가열될것이며 치렬한 북미대결은 북의 핵승리로 결판나게 될 것이다. ...

보수론객이었다고 할수 있는 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 당시 많은 사람들이 조미핵대결의 승부를 어떻게 예단하고있었는가 하는것은 너무도 명백한것이었습니다.

시일이 흐를수록 그 예단은 확신으로 굳어졌고 현실로 실증되었습니다.

자위적핵억제력을 보유한 조선은 미국에게 편속 강타를 안겼으며 마침내 《최종명망》, 《완전넘어뜨리기》 시키기 위한 단계에 들어서고야 말았습니다.

가히 놀라운 승전입니다.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횡포한 도전과 압력을 물리치며 화를 북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여 우리 인민의 손에 자위의 핵방패를 든든히 쥐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거례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합니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병진의 새로운 시대를 주름잡아가는 우리 인민의 긍지는 더욱 끝없습니다.

핵보유대업의 실현에 만세를 부르는 쉬워도 그것을 법화하고 운명개척의 전략으로 쏘아박는 용단은 아무나 내릴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더우기 핵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흐르는 국제정세속에서 핵무력건설을 전략적로선으로 채택하는것은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건 중대한 력사적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와 높은 수준의 지하핵시험에 질겁한자들의 발악적행위로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흐르던 3년전 그때, 누구도 우리 공화국에서 새로운 병진의 퇴성이 울리고 핵보유를 명기한 법령이 채택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국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선언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핵보유대업을 완성하실 확고한 결심과 백두의 담력과 기상을 지니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핵무력건설이라는 거대한 무거운 실을 위대한 새 병진로선으로 최후승리의 통장훈을 부르신 그이의 비범한 혁명적결단에 온 겨레가 경탄했고 세계가 격동했던것입니다. 《조선이 병진의 퇴성으로 미국을

최후의 심판장에 몰아넣고 있다.》

《제국주의대적과 단독으로 맞서 세계대전을 치른것과 맞먹는 위대한 승리》

새로운 병진로선에 담긴 애민애족의 숭고한 뜻은 온 겨레의 심금을 또 얼마나 세차게 울려줄까.

이 로선이 우월한것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철벽으로 다지면서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더 큰 힘을 돌릴수 있게 된다는데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자주적존엄과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다 같이 안겨주시려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비껴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민족의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밝아온 2012년 태양절의 첫 옥성연설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시던 그 진정넘친 의지가 그대로 당의 이 전략적로선에 담겨져있는것입니다.

새로운 병진로선으로 하여 미제국주의의 조선침략사가 시작되어 한세기반동안 지속된 반미대결전을 마침내 조선민족의 최후승리로 결속짓고 쌓이고 맺힌 민족의 한도 풀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수십년 삶이 철창속에 묻힌것도, 무수한 통일애국투사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것도 미국이 강요한 민족분열과 남조선에 부식시킨 식민지파썸통치체제때문이었습니다. 1950년대의 전쟁을 비롯하여 칠천지원수 미제국주의 때문에 이 땅의 아까운 목숨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까. 그들이 반미최후승리가 확신성있게 담보된 오늘의 현실을 본다면 서리서리 쌓인 원한을 단번에 다 가셔버리며 가슴후련해할것입니다.

병진의 기치높이 평화를 비롯한 민족의 귀중한 모든것을 지켜주시며 민족대번영의 창창한 앞날을 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지앞에서 북과 남, 해외의 조선동포들모두가 통일강국의 천만년미래를 희망에 넘쳐 그려보고있는것은 너무도 웅당합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청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자강력제일주의를 심장으로 받들고 7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나는 위대한 병진로선이 있어 이 전투도 반드시 승리로 결속되리라 믿습니다. 가로놓이는 모든 난관을 과감히 뚫고 나가는 신념, 그 어떤 고난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지로 진행되는 전투,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단호히 짓밟으며 나아가는 충정의 전투기록들로 하여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자랑스런 승리자의 대회로 더욱 빛나게 될것입니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안겨주고 키워주신 불굴의 자주적신념과 자강의 무한대한 힘을 뿌리로, 줄기로 하여 거목으로 자라난 병진의 내 조국은 영원히 승리합니다.

2

병진의 길을 돌아보는 감회도 벅차지만 오늘의 령마루에서 승리의 래일을 바라보는 환희는 더욱 큼니다.

지난 3년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켜온것이 민족의 존엄과 번영,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얼마나 정당한 결단이었는가를 뚜렷이 확증한 날이었습니

다.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

책동을 짓부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

오늘 세계는 3월전원회의의 높은 연단에서 울려 퍼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선언이 그대로 현실로 펼쳐지고있음을 놀라움과 경탄속에 보고있습니다.

강산이 변하는 세월이 10년에서 1년으로 성큼 당겨지고 천도개벽, 이채어경과 같은 새로운 시대어들과 더불어 병진의 새 력사가 창조되고 있는 우리 조국입니다.

지난 3년동안 인민을 위해 일떠선 빛나는 창조물들, 로동당만세가 절로 나오게 하는 시대의 기념비들은 그 얼마입니까.

몇몇 나라밖에 가지지 못한 위성관계종합지휘소, 세상유일 청년강국의 자랑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사회주의문명국의 축도로 솟아난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오직 조선에만 있는 궁궐같은 육아원, 애육원들, 평범한 인민들이 향유의 기쁨을 누리는 멋쟁이스키장과 승마구락부, 희한한 문수물놀이장...

이해의 첫 문을 과학기술로 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과학기술을 앞세워 나라의 재부를 늘이고 인민의 만복을 가꾸어가는 경이적인 소식들은 또 우리 마음을 얼마나 흥그롭게 해줍니까.

어제날 제가 흥안의 젊음안고 통일의 길로 떠나던 그때 천리마 라고 달리던 조국이 오늘은 만리마 를 타고 비약하고있습니다. 세대는 바뀌어도 격동의 세월속에 조국이 비할바없이 강해지고 젊어지니 그를 위해 미력이나마 바쳐온 삶이 이토록 보람차고 긍지로울수 없습니다.

한손에는 자위의 핵방패를, 다른 한손에는 과학기술과 자립경제의 위력한 무기를 틀어쥐고 남이 한걸음 걸을 때 백걸음, 천걸음도 성차지 않아 만걸음으로 주름잡아 달려나가는 인민, 이 시대상을 담은 단어 만리마라는 말을 음미할수록 이 모든 것이 다 핵강국의 덕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후련해집니다.

조국강토에 들췌워질 핵전쟁의 참화를 막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인민들을 하루빨리 잘살게 하는 가장 정당하고 믿음직한 길인 정의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나가는데 있음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철리로 되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핵무력강화를 위한 불철주야의 로정을 이어오신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014년 여름에만도 두달도 못되는 사이 조선 인민군 전략군의 전술로케트시험훈련을 세차례에 걸쳐, 그것도 7월 27일과 8월 15일 두 명절날까지 아낌없는 로고를 바쳐 지도해주셨습니다. 올해도 정초의 첫 수소탄시험으로부터 핵무기병기화사업, 란도로 케트발사훈련과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을 정력에 넘쳐 이끌어주시었습니다. 하기에 우리의 핵무력은 세계가 미처 예측할새도 없이 강화발전되고있는것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운반수단들까지 보유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 땅이 아니라 미국본토에서 반미대결전을 결속지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명실공히 힘의 균형을 이루고 부정의의 핵전쟁 그자체에 종말을 선언한 우리 조국입니다.

실로 세계정치사에 특기할 대사변입니다.

(4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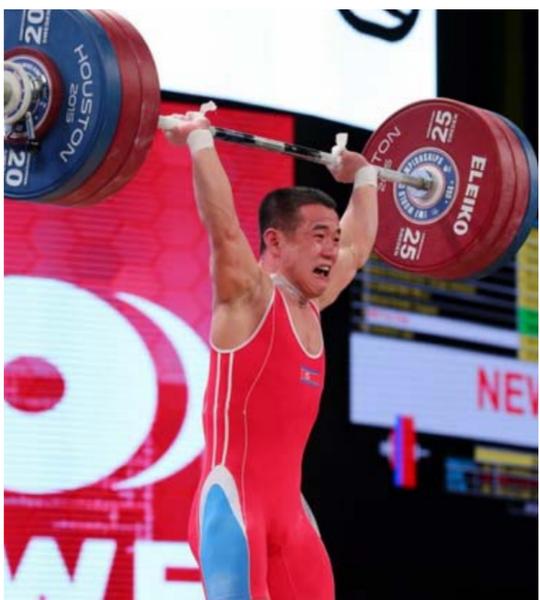
엄윤철 하면 공화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세계력기계를 뒤흔든 3중세계선수권보유자, 키는 자그마하면서도 세계신기록을 연이어 세운 놀라운 힘장사. 그를 한번 만나보고픈 마음은 누구나 한결갈을 것이다. 얼마전 기자가 보통 강박에 위치한 그의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니 엄윤철선수의 어머니 김복선(56살)녀성이 반갑게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지구도 들어올리는 조선의 힘을 시위하며

- 세계력기강자 엄윤철선수를 찾아서 -

맞아주었다. 자그마하면서도 단아한 녀인의 모습에서 아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은 사람들의 진심어린 도움과 방조가 깃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복선녀성은 윤철이는 날마다 커만 가는 사랑에 더 높은 경기성적으로 보답하기 위해 늘 훈련장에서 살다싶이 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잠시 후 그와 헤어진 기자는 청춘거리체육촌에 있는 경기판으로 향하였다.

할수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었습니다. 더우기 2007년 청년선수권대회에서 공화국 청년새기록을 수립하는것을 보면서 그러한 신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나 애착을 가지고 정열을 발휘할 것 아닙니까?

윤철선수는 압록강체육단에 온 첫날부터 그야말로 맹렬하게 훈련을 하였고 하나의 기술동작속편을 위해서만도 수백번의 반복동작을 하면서 항상 운문을 땀으로 적시곤 하였습니다.」

▶ 엄윤철선수에게서 특징적인것이 무엇입니까?
《부단히 새로운 목표를 높이 제기하고있는것입니다.

지난 시기 경기성적들이 보여주듯이 윤철선수는 세계신기록을 갱신하는것을 목표로 제기하고 맹훈련을 하여 국제경기들에서 세번이나 세계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013년 공화국에서 진행된 청년성인급 아시아컵 및 구락부력기선수권대회때에 있는 일이라고 한다. 당시까지 56kg급에서 푸르키예선수가 168kg

을 들어올린 세계기록보유자로 되어있었다. 그는 그것이 마치도 인간의 육체적한계점이라도 하듯 유명무명의 선수들이 도전했지만 그것을 모두 물리친 경기강자였다. 오만해진 푸르키예선수는 기자들앞에서 《인간의 능력으로써는 앞으로 이 무개를 더이상 초과하지 못할것》이라고 장담하였다. 하지만 10년간 고수되던 그의 기록을 나 어린 엄윤철선수가 허물어버렸다. 그는 자기 몸무게의 3배가 넘는 169kg을 버쩍 들어올려 세계기록을 갱신한 경기강자로 등장하였다.

지난해 미국에서 진행된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첫 우승자가 되어 제일먼저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리고 3중세계력기선수권보유자가 된 엄윤철은 기자회견에서 《금메달을 위해 다른 선수들이 달려왔다고 하는데 나는 날아가겠다. 그들이 날아가겠다면 그때는 이미 금메달이 조선에 와있을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였다.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깬다》

금메달, 이는 체육인이란 누구나 바라는 소망이다. 그러나 쉽게 얻을수 없는것이 아득한 높이에 있는 금메달이다.

승리의 값진 열매는 불굴의 정신력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강자에게 차례지는 법. 엄윤철선수는 그것을 다 갖춘 실력의 강자이다.

압록강체육단에서 생활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부터 엄윤철선수는 선수, 감독들과 식당의 조리사들에게서 《꼬마이악쟁이》로 불리웠다고 한다.

그에게는 땀에 찼작은 수첩이 있다. 거기에

들어올린 세계기록보유자로 되어있었다. 그는 그것이 마치도 인간의 육체적한계점이라도 하듯 유명무명의 선수들이 도전했지만 그것을 모두 물리친 경기강자였다. 오만해진 푸르키예선수는 기자들앞에서 《인간의 능력으로써는 앞으로 이 무개를 더이상 초과하지 못할것》이라고 장담하였다. 하지만 10년간 고수되던 그의 기록을 나 어린 엄윤철선수가 허물어버렸다. 그는 자기 몸무게의 3배가 넘는 169kg을 버쩍 들어올려 세계기록을 갱신한 경기강자로 등장하였다.

지난해 미국에서 진행된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첫 우승자가 되어 제일먼저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리고 3중세계력기선수권보유자가 된 엄윤철은 기자회견에서 《금메달을 위해 다른 선수들이 달려왔다고 하는데 나는 날아가겠다. 그들이 날아가겠다면 그때는 이미 금메달이 조선에 와있을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였다.



는 일별로 수행한 훈련내용들이 깨알같이 적혀있다. 불같은 훈련의 날과 달들속에서 엄윤철선수의 정신육체적힘은 더욱 강

승리의 값진 열매는 불굴의 정신력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강자에게 차례지는 법. 엄윤철선수는 그것을 다 갖춘 실력의 강자이다.

압록강체육단에서 생활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부터 엄윤철선수는 선수, 감독들과 식당의 조리사들에게서 《꼬마이악쟁이》로 불리웠다고 한다.

그에게는 땀에 찼작은 수첩이 있다. 거기에

에게 《축복》은 한가정 딸애의 이름으로만이 아니라 백두산위인들을 아버지로 모신 사회주의대가정, 삶을 빛내여주는 고마운 조국의 대명사로 소중히 간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민앞에 번영의 주로, 최후승리의 대통령이 펼쳐진 오늘의 격동적현실앞에서 저는 그 축복에 또 하나의 더 큰 의미를 엿습니다.

병진은 수난을 속명으로 타고났던 이 겨레모두에게 백두산위인들께서 안겨주신 더없는 축복입니다.

병진의 위대한 기치가 있어 머지않아 우리 인민은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범접할수 없는 푸른 하늘아래 사회주의만복의 주인공으로 될것입니다. 지지리 외래침략에 시달려온 민족수난사와 동의어로 씌여온 지정학적수명론을 영영 날려버리고 세계정치를 힘있게 주도하며 악의 원흉 미국을 무릎꿇리고 정의와 진리의 승리를 선언하게 될것입니다.

어제날 약소민족의 설을 끝냈던 우리 인민을 자강의 영웅들로 키워

해졌고 기술은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엄윤철이 국제경기마다에서 매번 폭발적으로 내는 무서운 힘, 그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의 경기를 지금 보아 주시고시며 반드시 이겨 원수님께 기쁨을 드려야 한다는 오직 그 하나의 생각과 각오이다.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도 깨뜨릴수 있는것이 나의 좌우명이다. 그 정신력으로 싸워 경기마다에서 우승할수 있었다.》

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리는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그가 외신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인민체육인이며 로력영웅인 압록강체육단력기선수 엄윤철은 2013년과 2014년, 2015년 공화국10대최우수체육선수로 선정되었다.

엄윤철선수는 말하였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제재와 압박소동에 미쳐날뛰지만 우리는 조금도 두려운것이 없습니다.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고 그의 두리에 천만이 굳어 최후승리는 우리의것입니다. 조선은 령토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지만 세계가 못 가진 불굴의 정신력과 자강의 역센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면 이 지구도 능히 들어올릴수 있고 세계를 당당히 앞서나갈수 있습니다.

저 역시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무궁무진한 힘으로 앞으로 있게 될 제3차올림픽경기대회에서 또다시 새기록을 세우고 주체조선의 영예와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겠습니다.》

본사기자 고영숙

어로공의 아들이 영웅으로

넓다란 공동살림방에 들어서니 엄윤철선수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들과 신문물증서들,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정일상, 로력영웅, 인민체육인증서를 비롯하여 국제경기들에서 받은 금메달들이 두 벽면을 꽉 채우다싶이 하고있었다.

벽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기자에게 김복선녀성은 지금도 꿈을 꾸는것만 같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로공의 아들인 우리 윤철이를 세계적인 경기강자로, 영웅으로 키워 영광의 절정에 올려세워주시고 이렇듯 궁궐같은 집에서 부모들과 함께 살도록 해주시었다고, 우리 가정이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을 전하자면 며칠밤을 새워도 모자랄것이라고 말하였다.

▶ 아들이 어떻게 되어력기선수가 되었는지요?

《우리 윤철이는 어려서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12살때 축구소조에 들어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체육교원이 윤철이에게 축구보다 력기를 하는것이 낫겠다고 했대지요. 청진시청소년체육학교 신갑준 력기지도교원도 우리 윤철이를 보더니 어개가 력도산과 비슷하다며 력기선수가 될것을 권고했답니다.》

▶ 가족래력에 력기를 한 사람이 없었는가요?

《없습니다. 그러나 체육을 싫어한 사람은 없었어요. 남편도 수산사업소 아로공을 하면서 소문난 씨름선수였고 나도 가두에서 체육경기를 할 때마다 꼭꼭 참가하곤 했지요. 우리 랑주가 체육을 좋아해서인지 우리 딸도 동생 윤철이와 함께 도청소년

체육학교에서 력기를 배웠답니다.》

▶ 어느 체육종목이나 그러하지만 특히 력기선수로서 성공한다는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윤철이는 원래 몸이 약하고 키도 크지 않았어요. 그러다나니 력기소조에 가서 무거운 구간을 들어올리느라 힘들었습니. 그런데도 투정 한마디 없이 력기훈련을 열성스레 하고 하루훈련이 끝난 다음에도 자체로 세운 훈련계획을 수행하느라 땀흘리는 모습을 볼 때면 대견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후 나라에서는 우리 윤철이를 압록강체육단으로 불러주어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쳐주었습니다. 우리 윤철이가 이룩한 경기성과들에는 도청소년체육학교와 압록강체육단의 많

감독이 들려준 이야기

력기경기판안에 들어서니 한창 선수들이 제3차 국제올림픽경기를 위한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그 속에서 엄윤철선수의 모습도 찾아볼수 있었다.

엄윤철선수의 국제경기 성적은 눈부시다. 몸무게급은 56kg인데 2012년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종합 1위, 2013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종합 1위를 하고 2013년, 2014년, 2015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쟁취하여 세번이나 련속 세계선수권 보유.

훌륭한 선수의 뒤에는 유능한 감독이 있는 법, 그가 압록강체육단의 로현철 력기감독이다. 그는 력기선수생활을 하는 기

간 국내경기들에서 30여개의 금메달을 쟁취한 전적을 가지고있으며 감독으로 일해온 10여년간 여러 선수들이 국제경기들에서 높은 성적을 이루도록 한 이름있는 력기감독이다.

기자는 로현철 력기감독에게 물었다.

▶ 엄윤철선수가 력기적성체질이라고 하던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기는 조선사람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체육종목이라고 하시면서 적성체질을 갖춘 대상들을 선발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습니다.》

력기는 몸질량급이 같은 선수들이 누가 더 무거운 중량물을 머리위로

들어올렸는가에 따라 승부를 가르는 중경기종목입니다. 력기종목과 같이 무거운 중량물을 들어올리자면 하체의 힘이 강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체의 힘이 매우 발달되어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조선사람들이 력기종목에서 추켜올리기에 치중하는 훈련방식을 고수해온것도 하체의 힘에 집중하여 구간을 들어올리는 추켜올리기에 매우 강하기때문입니다.

윤철선수는 운동감각이 뛰어나고 하체의 힘이 강한것으로 하여 력기적성체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윤철이를 데려왔을 때 적지 않은 감독들이 적성체질이 아니라며 도리머리를 저었습니다. 더구나 너무도 자그마하고 체소한 그의 체격을 높고는 력라하는것이 힘자랑이나 같은 것인데 이렇게 약골같이 보여서 무슨 일을 치겠는가며 전망이 보이지 않으니 나에게 포기할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켜올리기에 특기를 가지고있는 윤철이를 보면서 훈련에 진입하면 무서운 정열로 훈련하는 그의 기질에서 꼭 성공

《병진성공불가》를 앞장에서 떠들어대던 남조선당국자들이 《북에 졌다.》고 비명을 울리고 해외의 인사들속에서 공화국의 발사체로 위성을 쏘아올리자는 주장이 나오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습니다.

자강력의 두 기둥인 우리의 위성과 무적의 핵보검, 여기에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심단결이라는 최강의 무기까지 합쳐진 3위1체로 병진성공을 힘있게 떠받치고있으니 바야흐로 우리 인민의 반미대결전은 최후승리의 직선주로에 진입하였습니다.

병진은 우주의 대폭발과 같은 파괴력으로 세계정치체형을 뒤바꾸어 놓고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4강으로 둘러싸인 조선반도의 지정학적구도가 오늘날 김정은제1위원장님의 손에 쥐어진 결정적주제장에 따라 뒤바뀌게 되었다.》고 평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비전향장기수가정에 태어난 새 생명에 《축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는 숭고한 뜻이 새삼스럽게 안겨듭니다. 우리들

에게 《축복》은 한가정 딸애의 이름으로만이 아니라 백두산위인들을 아버지로 모신 사회주의대가정, 삶을 빛내여주는 고마운 조국의 대명사로 소중히 간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민앞에 번영의 주로, 최후승리의 대통령이 펼쳐진 오늘의 격동적현실앞에서 저는 그 축복에 또 하나의 더 큰 의미를 엿습니다.

병진은 수난을 속명으로 타고났던 이 겨레모두에게 백두산위인들께서 안겨주신 더없는 축복입니다.

병진의 위대한 기치가 있어 머지않아 우리 인민은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범접할수 없는 푸른 하늘아래 사회주의만복의 주인공으로 될것입니다. 지지리 외래침략에 시달려온 민족수난사와 동의어로 씌여온 지정학적수명론을 영영 날려버리고 세계정치를 힘있게 주도하며 악의 원흉 미국을 무릎꿇리고 정의와 진리의 승리를 선언하게 될것입니다.

어제날 약소민족의 설을 끝냈던 우리 인민을 자강의 영웅들로 키워

(3면에서 계속)

겨레와 세계의 량심들은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백두산담력으로 세계사를 가로지르는 김정은천출명장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거시적안목이 안아온 특기할 력사적사변》, 《조선이 틀어진 정의의 수소탄은 미국의 핵침략야망은 물론 미국주도의 불공정한 국제질서까지 통채로 날려버릴 비장의 무기》라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위력에 혼비백산한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매일과 같이 비명을 지르고있습니다. 지어는 그 무슨 《비용》이 어찌고저찌고 하며 우리의 병진로선을 헐뜯어보려 하는데 얼마나 가스로운 일입니까. 우리의 핵개발자들을 비롯한 병진로선실천자들의 무궁무진한 애국열의와 위력한 자립적경제도대, 풍부한 자원에 의거하여 100% 자체의 힘으로 진행되는 우리의 핵무력건설을 막대한 기술이전비용과 물자구입비, 인건비 등을 퍼부어야 하는 저들의 시각에서 재단하려드느것자체

가 무지와 무식의 발로로서 허황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다짐으로써 추가적인 국방비 지출이 없이 전쟁억체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이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성속도까지 더해져 병진의 만리마는 더 기운차게 날아오르고있습니다.

TV를 통해 본 《광명성-4》호의 발사장면은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이 몸에도 참으로 걱정이 부반치고 폐부를 찡하게 해줍니다.

자존, 자강과는 정반대의 길을 강요당하며 자기의것에 목말라온 남녘동포들에게 100% 국산화된 주체위성의 자력발사와 련이온 성공은 대단한 충격일것입니다.

자주적존엄을 걸고 단행하는 위성발사는 우리의 과학기술발전의 견인차, 경제강국으로의 도약대입니다. 위성이 가져다주는 과학기술적진보와 경제적효과로 우리 경제가 소리치며 솟구쳐오르는것은 시간문제입

니다.

《병진성공불가》를 앞장에서 떠들어대던 남조선당국자들이 《북에 졌다.》고 비명을 울리고 해외의 인사들속에서 공화국의 발사체로 위성을 쏘아올리자는 주장이 나오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습니다.

자강력의 두 기둥인 우리의 위성과 무적의 핵보검, 여기에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심단결이라는 최강의 무기까지 합쳐진 3위1체로 병진성공을 힘있게 떠받치고있으니 바야흐로 우리 인민의 반미대결전은 최후승리의 직선주로에 진입하였습니다.

병진은 우주의 대폭발과 같은 파괴력으로 세계정치체형을 뒤바꾸어 놓고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4강으로 둘러싸인 조선반도의 지정학적구도가 오늘날 김정은제1위원장님의 손에 쥐어진 결정적주제장에 따라 뒤바뀌게 되었다.》고 평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비전향장기수가정에 태어난 새 생명에 《축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는 숭고한 뜻이 새삼스럽게 안겨됩니다. 우리들

에게 《축복》은 한가정 딸애의 이름으로만이 아니라 백두산위인들을 아버지로 모신 사회주의대가정, 삶을 빛내여주는 고마운 조국의 대명사로 소중히 간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민앞에 번영의 주로, 최후승리의 대통령이 펼쳐진 오늘의 격동적현실앞에서 저는 그 축복에 또 하나의 더 큰 의미를 엿습니다.

우리 인민앞에 번영의 주로, 최후승리의 대통령이 펼쳐진 오늘의 격동적현실앞에서 저는 그 축복에 또 하나의 더 큰 의미를 엿습니다.

우리 인민앞에 번영의 주로, 최후승리의 대통령이 펼쳐진 오늘의 격동적현실앞에서 저는 그 축복에 또 하나의 더 큰 의미를 엿습니다.

우리 인민앞에 번영의 주로, 최후승리의 대통령이 펼쳐진 오늘의 격동적현실앞에서 저는 그 축복에 또 하나의 더 큰 의미를 엿습니다.

우리 인민앞에 번영의 주로, 최후승리의 대통령이 펼쳐진 오늘의 격동적현실앞에서 저는 그 축복에 또 하나의 더 큰 의미를 엿습니다.

우리 인민앞에 번영의 주로, 최후승리의 대통령이 펼쳐진 오늘의 격동적현실앞에서 저는 그 축복에 또 하나의 더 큰 의미를 엿습니다.

우리 인민앞에 번영의 주로, 최후승리의 대통령이 펼쳐진 오늘의 격동적현실앞에서 저는 그 축복에 또 하나의 더 큰 의미를 엿습니다.

우리 인민앞에 번영의 주로, 최후승리의 대통령이 펼쳐진 오늘의 격동적현실앞에서 저는 그 축복에 또 하나의 더 큰 의미를 엿습니다.

우리 인민앞에 번영의 주로, 최후승리의 대통령이 펼쳐진 오늘의 격동적현실앞에서 저는 그 축복에 또 하나의 더 큰 의미를 엿습니다.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최후의 승리자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무슨 말로 다 감사드릴것습니까.

* *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영원한 태양의 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의 맹세가 울려 퍼진 룡남산이 위치한 유서깊은 곳에서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였습니다.

태양의 축복속에 최후승리의 새날을 부르며 일떠서는 이 거리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무용지물로 흘날려버리고 세계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조선의 기상을 만천하에 시위하게 될것입니다.

저의 눈앞에는 벌써 그 승리의 날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한생 심장을 바쳐 불려온 애국가의 구절이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집니다.

《진리로 뭉쳐진 역센 뜻 온 세계 앞서나가기》,

우리는 이미 그날에 살고있습니다.

시뮬음

병진의 길에 최후승리가 있다

력사의 3월

김태룡

이 땅에 평범하게 살아왔건만
평범하게 흐른 하루가 아니었다
3년전 3월 31일 이날은
이 나라 인민이 자기 운명의 궤도에
승리와 번영의 영원한 해살을 얻은 날

감격의 눈곱에 맺혀 흐른 뜨거운 눈물
그것은 철세의 애국자
김정은원수님 그이의 경륜에
이 나라가 드린 고마움의 큰절이었거니

그날에 미처 다는
생각할수도 상상할수조차 없었던
위대한 영광의 메부리에 올라선 오늘
아, 력사의 그 3월 돌이켜보아
누구나 가슴젖어 다시 불러보나니

반만년민족사가 그토록 갈구했던
강국의 최고리상을 향해 솟구쳐오를
거대한 힘의 나래를 원수님 주신 날이어
황홀한 만복의 화원 웅대한 설계도를
그이 인민의 생활에 그려주신 날이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

지녀야 할 힘도 최강으로!
누려야 할 행복도 최상으로!
그이 지니신 응지 열화같은 사랑이 펼칠
더 강대하고 찬란할 래일을 그려
뿌듯한 가슴 벅차게 높편 날이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존엄
누구도 부럽지 않은 행복
어디에 있는지 다 말해주는 글밭
시대가, 흘러온 민족사가 바라운
그 리상과 념원을 이룰 길을
숭고한 뜻으로 가리켜준 이 글밭

승리에 대한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세게 자리잡은 날
오, 영원한 승리와 행복의
천만년세월을 싣고온 3월이어
원수님 안아오신 민족만대 행운의 날이어!

그날에 인민이 러뜨린 환호

강대하다 불패의 핵강국

김송림

불러 이 가슴에
크나큰 격정의 해일 일으키는가
핵강국!
세상의 한끝까지 장쾌히 뒤울리게
한가슴 터쳐 웨치고싶어라
아, 내 조국은 강대한 핵강국이다

하늘이 준 행운이 아니다
그 누가 준 선사품이 아니다
오, 우리의 핵은
병진의 뜻과 뉘이 숨쉬는 응결체
병진이 탄생시킨 정의의 보검

아직은 누구나 말로만 들어오던
수소탄— 그것을 다름아닌 자기 손으로
민족의 재보로 이루어졌을 때
최강의 그 힘이 너무나 궁지로워
은 나라가 눈물로 터쳐 불렀던 그 부름

누구나, 나서라
병진으로 버려진 이 핵에 맞설자는
자비도 타협도 모르는 우리의 핵무기는
지구상 그 어디 끝자락에 있다 해도
끝까지 보여주리라 조선의 핵맛을

대공을 치뿜으며 날아오른
전략로켓의 거센 불줄기
원수님 보아주신 소형핵탄두
은백색의 눈부신 그 광채를 볼 때도
누구나 걱정으로 터쳐 불렀던 그 부름

침략자 강도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 법
오직 불의 론리만이 통하는 법
세계의 평화와 안전도
조선의 핵이 지킨다
세계의 정의와 미래도
조선의 무진막강한 핵으로 담보한다

얼마나 바라던 최상의 존엄이던가
얼마나 애타게 원하던 최강의 힘이던가
민족의 숙원이 최고의 경지에 오른
위대한 핵강국
장엄한 핵퇴성은 부국강병의 숙원 이루어주신
원수님께 드린 최대의 감사

미제의 운명에 멸망을 선고할
최후승리의 선언서와도 같은 병진로선
이 병진으로 숲을 이룬 주체란, 통일란
최후승리의 포성도
통일강성국가의 장엄한 축포성도
오, 우리는 핵퇴성으로 터쳐올리리라

자강의 힘

김영일

얼마나 몰라보게 변모된 이 땅인가

3년전 3월의 그날로부터

우리의 생활은 또 얼마나 아름다워졌
는가
내 나라에 가득히 차고넘치는
인민의 복된 삶의 노래여

에서
한탄의 한숨 하늘보며 뿔었으리

웃음과 랑만이 흐르는 생활의 보금자리
세상을 굽어보는 문명의 창조물들
우리는 소리쳐 자부하거니
그 모든것 우린 황금으로 이루지 않았다
남의 손을 빌려 세우지도 않았다

핵무기도 자강의 힘으로
만복의 화원도 자력의 힘으로
원수님 그어주신 병진로선의 그 길에서
기적을 안아오는 불굴의 의지도
자기를 믿는 힘도 더욱 굳게 지녔다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압살
몰아오는 그 광풍은 더욱 가혹하다
넘어야 할 고난의 준령 중중첩첩이다
우리의 어깨를 내리누르는
시련의 중압도 천만근이다

하늘에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
땅밑에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
우리가 잘 살기를 우리가 잘되기를
한사코 가로막는 원수들 보란듯이
자랑높이 이루어낸 살집같은 재부들이여

허나 우리는 곳곳이 일어섰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질
그 엄혹한 광란의 격랑속에서
무슨 힘으로 무슨 의지로
그것은 원수님 안겨주신 자강의 힘!

그 자력자강의 힘으로
우린 일떠세우리라 려명의 새 거리를
최첨단 공장들과 신경의 마을들을
우리 사는 그 모든 곳들에
행복의 열매 우리 손으로 주렁지우리라

그 자강의 힘이 없었다면
우리 시련의 진땀속에서
영영 솟구쳐 일떠설수 없었으리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쌀쌀한 이 세계

자강으로 존엄높고
자강으로 번혁의 별천지 펼치는 내 나라
다가올 미래의 번영을 그려주는
자강의 이 역사인 힘으로
세계를 딛고 우뚝 솟으리라
조선은 세상만방에 찬란히 빛나리라

우리에게 이 길뿐이다

김태룡

어제도 이 길을 따라왔고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간다
묻지 말라 래일은 어떤 길 걷는가
변함없다 우리는 가리라
오직 하나 병진의 한길을

모든 존엄과 영광
무한한 행복과 번영의 총체!

약자는 강자의 발굽에 짓밟혀도
그 어디 하소할데 없는 오늘의 세계
누구도 구원의 손길
동정의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이 행성우에
지금도 흐르고있지 않느냐 약자의 피눈물은

우리는 원치 않아라
힘이 없는 정의를 말로만 웨치는것을
침략의 불길에 재가 되는 행복을
세상의 길들엔 갈래가 많다 해도
병진의 길 아닌 다른 길 기웃거리지 않
으리

그 피절은 설움과 울분이
우리 가슴에서 뿔어져나오지 않기 위해
포악한 제국주의 횡포한 광란에
소중한 모든것 잃어버릴수 없기에
운명의 기치로 추켜든 병진!

가소롭다
병진로선은 성공할수 없다고
병진을 포기해야 한다고
망발을 웨치는 미제와 역적패당들
똑똑히 보여주리라 조선은
만리창공에 병진의 성공탑 쌓아올리리라

바라는 최강의 역센 힘도
병진의 그 길에서 우리는 찾았고
황홀한 꿈의 화원도
병진의 그 길에 새앗을 묻으며
손이 닳도록 우린 가꾸어왔거니

불구를 나서면 쳐내며 가리라
준령이 가로막으면 들부시며 가리라
강력한 핵보검
만복의 열쇠 역세계 틀어쥐고
스스로 정하고 선택한 이 길만을 걸으리

달리야 말할수 있으라
병진! 오, 그것은 목숨이고
심장의 퍼즐 잇고사는 생명선
뼈대에 새기고 사는 진리의 참뜻

30년, 300년이 흐르고 흐른대도
우리 운명의 리정표가 굳건히 세워진
병진의 이 길만을 곳곳이 가려니
최후승리의 언덕을 향해 나아갈
인민의 길 조선의 길은 이 길뿐이다

미래가 웃는 땅 (2)

아이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여

에로부터 아이들과의 약속은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사
랑과 순결하고 아름다운 감정의
표현이라고 했다.

그런 것으로 하여
김정은령도자님께서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 아이들
과의 약속을 지켜 한해에 두번
씩이나 경상유치원을 찾아주셨
다는 사실은 나에게 강한 충격
을 주었다.

유치원을 찾은 내가 제
일 관심을 가지게 된것은
김정은령도자님께서 어떻게
되어 찾으신지 40여일만에 또
다시 유치원을 다녀가셨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러는 나를 보며 리강죽원
장은 말하였다.

《우리 유치원을 다시 찾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경상유치원을 다시 돌아
보고싶어 왔다고, 자신께서 전
번에 왔다가면서 6월에 다시
와보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
미전부터 와보려고 생각은 하
면서도 시간을 내지 못하고있
다가 오늘에야 왔다고 말씀하
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고무깔판을
새로 깔아놓은 운동장과
자신께서 보내주신 유희기재

들이 설치되어있는 놀이터에
서 행복에 겨워 웃음을 터치
며 나비처럼 나풀거리며 뛰노
는 아이들을 정겹게 바라보시
며 이제는 어린이들이 운동장
과 놀이터에서 뛰놀다가 넘어
져도 상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었
습니다.》

감동에 젖어 이야기하는 그
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놀
랐다.

정말 유치원을 최상의 수준
으로 건설해주시고도 장난세
찬 아이들이 뛰놀다가 조금이
라도 상할세라 것처럼 마음쓰
시며 교양원들도 일꾼들도 미
처 생각지 못한 고무깔판과 함
께 회한한 놀이기재까지 보내
주시다니!

한해에 두번씩이나 찾아오신
그분의 육친적인 사랑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유치원어린이들이 오르내릴
때마다 우측통행을 한다는
《말모양통행표식》을 살짝살
짝 짚으며 우리 일행이 들어선
곳은 2층종합놀이장이였다.

하나같이 북스럽고 귀엽성스
러운 아이들이 자기의 취미와
동심에 맞게 놀이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고있었다.

《꼬마친구들, 안녕하세
요?》라는 우리의 인사에 어린
이들은 저마다 방긋 웃으며 손
을 흔들어주었다.

나는 병원놀이칸에서 의사놀
이를 하는 어린이에게 스스로
없이 다가갈 팔을 내밀며 물
었다.

《꼬마선생님, 내가 어디 아
파하는것 같은가요? 어서 진찰
해보세요.》

그러자 청진기를 목에 건
《의사》는 제편에서 두눈이
울퉁하여 되묻는것이였다.

《손님은 어디가 아픈가
요?》

모두가 목소를 러뜨렸다.
마주앉아 진찰을 받고있던
《얘기어머니》어린이도 응석
받이처럼 천진하게 웃었다.
나는 그때 기껏해서 손톱에

봉선화의 물을 들이거나 진흙
을 빚어 세간살이놀이를 하던
기구한 소녀시절의 동심을 돌
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고보면 경상유치원의 아
이들은 얼마나 행복했인가.
4층운동실에도 들린 우리는
그날 김정은령도자님께서 어
린이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는 그 자리에도 서보
았다.

운동복을 떨쳐입고 료에 공
넝기와 력기놀이를 하고있는
어린이들이 모두 《힘장수》
들이였다.

연방 감란을 금치 못하며 우
리는 그들에게 엄지손가락을
펼쳐보이였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애들의 꿈은 무엇일까?
과학자, 음악가, 설계가, 체



육인...

이 회한한 궁전에서 저애들
은 한점의 그늘도 없이 마음껏
뛰놀고있구나! 자기들의 《세
상》에서 앞으로의 고운 꿈을
꽃피워가고있구나!

령도자에게 있어서 시간은
천금이다.

더우기 적대세력의 준동이
갈수록 더해만가는 준엄한 시
국에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
는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나라
의 중대사가 어찌 한둘이랴.

하지만 김정은령도자님께서
는 것처럼 귀중한 많은 시간을
아이들속에 계시며 이 작은 유
치원뜨락 안에서 보내시었다니
얼마나 가슴뜨거운 일인가.

그러시기도 못 다주신것이
있으신듯 교양원들의 한결 같
은 소원을 헤아려 비가 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몸
소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었으
니 그분의 다심한 사랑을 어디
에 비길수 있으랴.

그분께서 천금같은 시간을
바치시여 어린이들과 하신 약
속을 지켜주시 뜻깊은 그 하루
는 공화국의 천만년미래를 축
복해준 참으로 의의깊은 날이
였다.

재미동박 박윤자

얼마전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이 진행되었다는 보도가 나가자 박근혜역적패당은 《어떤 위협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것》이라느니, 《무모한 도발은 북정권의 자멸의 길이 되고말것》이라느니, 《전시에 이런 방식으로 포격을 하면 주(한) 미군의 대전차공격기 등의 포격에 피멸할것》이라느니 하며 황실수설하였다.

이것은 공화국의 정의의 불세례앞에 언제 타죽을지 모를 처지에 있는 저들의 간들거리리는 운명과 극도의 불안, 공포심을 애써 감추기 위한 한갓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에 공화국의 장거리포병대가 백수십문의 장거리포와 방사포들을 집결시켜놓고 집중화력타격연습을 한것은 단순한 훈련이나 위협이 아니라

도발과

단호한 경고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따르는 운명의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는 천하망동짓을 조금이라도 시도하는 경우 가차없이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향해 단호한 불세례를 안길것이라는 최후통첩이다.

이번 연습에서도 장거리포와 각종 방사포의 위력은 남김없이 실증되었다. 정의의 포신들에서 멸적의 포탄들이 우박치듯 련속 날아가고 목표물인 바다가운데의 섬이 실재없이 화염에 휩싸이는 광경은 보는 사람마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었다.

이 무장장비들의 무서운 위력에 대해서는 3월 28일 남조선의 《헤럴드경제》도 《지난 2006년 (한국) 군 합동

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의 170mm자주포는 시간당 3 618발, 240mm방사포는 시간당 1만 3 068발을 서울을 향해 쏟아부을수 있다. 순식간에 퍼붓는 북의 방사포, 모두 요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M1991방사포 1문이 일제사격을 가할 경우 900m 곱하기 300m의 면적을 초토화시킬수 있는데 이러한 방사포가 200여문가량 집중운용되면 단 1회 일제사격만으로도 여의도면적의 18배,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9%가 불바다가 된다.》고 아우성을 쳤다.

200여문이 한번 일제사격하는것만으로도 서울시의 9%가 불바다가 된다고 하니 군사분계선북측지역에 실전배치된

징벌

수천문의 장거리포, 방사포들이 일제히 불을 토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말그대로 참혹할것이다.

청와대가 도사리고있는 서울은 군사분계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전쟁이 터지면 제일먼저 지척에서 포탄이 날아들 곳이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미국과 리승만도당은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아침은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으며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점심을 평양에서 먹기는커녕 전쟁개시 3일만에 서울이 인민군대에 의해 함락되는 수치와 봉변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때 서울에 제일먼저 입성한것은 공화국의 영웅한 땅크부대였다. 인민군대의 열

마 안되는 땅크가 평음을 울리며 서울시가지에 나타나자마자 미군과 남조선군은 공포에 질려 싸움도 제대로 못해보고 모두 줄행랑을 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나마 미처 도망도 다 못했는데 인민군대의 남진을 멈추겠다고 한강다리를 폭파시키는바람에 수많은 미군과 피뢰군이 강에 추락하여 물고기밥이 되는 신세가 되었다.

지금 박근혜역적패당은 어리석게도 미국을 하내비처럼 믿고 감히 《평양진격》이니, 《참수작전》이니, 《집무실타격》이니 하며 무모한 망동을 부리고있다.

《평양진격》의 더러운 발이 움직이기도 전에 징벌의 섬멸적포화로 제일 선참으로 불세례를 받을것은 박근혜가 등지

를 든 청와대이고 서울의 반동통치기관이다.

미국과 남조선역적패당이 공화국군대의 거들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찬란한 운명의 태양을 가리워보려는 천추에 용납 못할 망동까지 저지르고있는 오늘 정의의 강철포신들은 포문을 열고 최후의 발사명령만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의 집중화력타격연습은 그를 위한 사전예고이고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날치는 역적패당에 대한 엄정한 경고이다.

만일 박근혜가 공화국군대의 강경한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멸행동을 계속하며 사소한 도발의 기미라도 보인다면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은 진짜 재가루가 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주일봉



무자비한 섬멸전으로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를 안아올 멸적의 기상을 시위하는 공화국의 혁명무력

침략의 핵과 자위의 핵

흔히들 말하기를 《외교관들의 잉크는 대포의 폭약을 뿌리면 쉽게 지워진다.》고 한다.

이전 쏘련과 파쇼도 이월란드사이에 체결되었던 불가침조약은 히틀러의 쏘련침공으로 말미암아 파기되었다. 《바르바로사》작전계획에 따라 파쇼도이월란드는 1941년 6월 22일 새벽 3시 300만명이 넘는 대군으로 쏘련을 향해 쳐들어갔다.

고금동서의 력사에는 나라들사이에 맺어졌던 강화조약이나 불가침합의가 계약국 일방의 파기나 침공으로 무효가 된 일이 허다하게 기록되어있다.

지금까지 조선반도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공화국에 많은 《화약》을 했다.

미국이 1994년 10월의 제네바합의를 통해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한것이 그 대표적이다. 그래서 채택된것이 조미기본합의문이다. 그 이후 또 다시 마련되었던 2005년의 9.19공동성명에도 남조선이 핵무기를 끌어들이지 않으며 미국이 공화국에 대해 핵위협을 하지 않는다는것이 다시 한번 명시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공화국에 한 《담보》란 불에 탄 종이재우에 적은 《담보》였고 실적이 없는 《약속》이었다.

사실 공화국은 1994년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른

공약대로 자립적핵동력공업까지 동결시켰었다. 그리고 9.19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한 2.13합의에 따라 냉변의 원자로가동도 중단하고 전세계가 지켜보는 속에 랭각탑까지 폭파하였다. 그 이후의 10.3합의리행을 위해 핵시설무력화작업에도 착수했다.

공화국은 이렇게 합의에 따른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왔으나 미국은 판관 달랐다. 미국은 자기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켜버린채 공화국을 끊임없이 핵으로 위협해왔다.

남조선의 하수인들과 함께 핵전쟁연습의 불구름을 시도 때도 없이 일으키며 저들의 《공약》을 스스로 켜던졌다.

미국이 남조선당국과 함께 매일과 같이 벌리는 광란적인 북침전쟁연습소동은 명백히 저들이 핵으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공약한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연습이다.

어디 이뿐인가. 21세기에 집권한 부위정권이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몰아대면서 핵선제공격대사령단에 올려놓았던것은 결코 옛말이 아니다. 현 오바마행정부 역시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명했으며 전 미국방장관 파네타는 2011년 10월 남조선핵개발에 남조선군장부 장관에게 조선반도유사시 《필요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립장을 공식전달

했다.

지금 남조선에서 사상 최대규모로 벌어지고있는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도 북침선제공격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되고있는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이다.

이렇듯 조미기본합의문과 9.19공동성명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 조미사이에 이룩되었던 합의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나선것은 바로 미국이다.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을 근본원칙으로 내세운 유엔헌장을 유린하면서 침략과 전쟁을 일삼는 미국의 전횡과 횡포로 오늘 날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이 엄중히 침해, 말살되고있는것이 랭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그레네이더와 파나마, 이전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의 많은 나라들이 자기를 지킬 힘이 약했던탓에 외세의 침략앞에 속수무책일수밖에 없었다.

공화국이 선군의 기치 높이 자기의 총대를 강화해온것은 바로 고금동서의 력사, 랭혹한 국제현실에 따른 자위의 전략적선택이었다.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공화국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법령으로 발표한것이다.

공화국에는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국의 원자탄공갈과 그들이 실지로 시

도했던 《방사능복도지대형성》, 그로 하여 초래됐던 《원자탄피난민》행렬에 대한 결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

미국이 유엔을 동원한 그 어떤 《결의》로 공화국을 굴복시킬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에는 그러한 압력이 절대로 통할수 없다.

적대세력들의 가장 로골적인 핵전쟁도발에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핵타격전으로 대답하려는것이 공화국의 드림없는 의지이다.

공화국이 단행할 무차별적인 핵타격전은 침략과 전쟁에 혈안이 된자들의 머리우에 가차없는 정벌의 불소나기를 퍼붓고 전쟁상인들의 아성을 사정없이 불마당질해버릴것이다. 진짜불맛, 진짜전쟁맛이 어떤것인가를 몸서리치도록 보여주고 적대세력들의 소굴을 최후명멸의 무덤으로 만들어 주게 될것이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탄공격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류를 핵참화속에 몰아넣었던 미국이다.

어쩌면 이제 공화국이 《핵전쟁법》 미국과 핵전쟁사환군들에게 《신의 징벌》을 내리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량심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줄지도 모른다.

재중동포 리수자

3월의 정세가 새겨주는 진리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있어서 조선반도는 세계속의 크지 않은 지역이다. 허나 조선반도를 떠나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 논할수 없다.

그 중요한 리유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바로 이곳에서 평화와 전쟁, 정의와 부정의간의 치렬한 대결전이 벌어지고있기때문이다. 3월의 일력을 펼쳐보자.

년초부터 공화국의 합법적인 국력강화조치를 결코들며 날강도적인 《제재결의》를 조작해낸 데 이어 날과 달을 이어오며 북침전쟁연습을 그칠새없이 감행해온 미국과 남조선호전당국은 3월 7일부터 도발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사상 최대규모로 벌어진 이번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에는 2만 7 000여명의 미군과 30만여명에 달하는 남조선군의 방대 한 병력과 각종 핵전쟁장비들이 총동원되었다.

용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방대한 무력의 참가하에 벌어지고있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미국과 남조선호전당들은 제2의 조선전쟁의 불을 지펴려는 범죄적용계를 로

골적으로 드러내보였다. 내외호전광들은 특수전 무력의 대대적투입이니, 북의 전지역에 대한 《점령》이니 하고 피대를 돌구면서 연습에 투입된 전쟁장비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등으로 공화국을 로골적으로 위협하였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국과 남조선호전당국이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에 극도로 모험적인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하고 공화국의 최고수뇌부와 《제도전복》을 노린 친인공노할 《참수작전》과 《평양점령》까지 실행하는 실동적인 전쟁수행방식으로 강행한것이다.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의 메두리내에서 《작전계획 5015》에 따라 감행된 연합 《상륙훈련》, 특수작전, 시가전, 《정밀타격훈련》 등은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선 미국과 남조선호전당국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망동이 극단적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내외호전광들의 북침전쟁광기는 가득이나 팽팽한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전쟁점경으로 몰아넣었다. 국제사회계가 커다란 우려와 불안감을 안고 조선반도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는것은 무리가 아닌 병력과 각종 핵전쟁장비들이 총동원되었다.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공화국은 강력 한 자위적대응조치를 련속 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도발광기

에 전면대응하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하며 군사적 대응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핵타격전으로 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수 있는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과 정밀화되고 소형화된 핵탄두의 공개, 조선인민군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탄도로 케트발사훈련과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 등은 공화국의 이 선언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련속적으로, 다발적으로 진행된 공화국의 강위력한 군사적대응조치들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말살하려는자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이건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려는 공화국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 멸적의 기상을 반영한것이다.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첨예한 3월의 조선반도의 정세를 보면서 세계는 조선반도에서 진짜 전쟁도발자가 누구이고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가 누구인가를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으며 강위력한 총대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았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과 핵전쟁도발책동에 조급도 끄떡없이 자기의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은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현 남조선당국이 집권 기간 저지른 최악 가운데서도 가장 큰 최악은 민족의 최고존엄에 대한 용납 못할 모독행위이다. 북과 남사이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공화국의 천만국민은 자기의 령도자를 위대한 어버이로, 스승으로 받들어 모셔왔으며 최고존엄을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고 있다. 누구도 가질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을 지니고 지칠줄 모르는 사상리론활동과 실천활동을 벌리시며 나라와 민족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공화국의 령도자를 인민들이 따르고 숭배하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다. 백과사전적인 지식과 끝없는 풍부한 투쟁경험, 인민들에 대한 불보다 뜨거

민족의 통일열망을 짓밟은 반통일대결 《정권》 (4)

운명의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고

운 사랑,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시고 인민들과 함께 시련과 난관을 앞장에서 헤쳐나가는 자기 령도자를 인민들은 무한히 신뢰하며 그이의 부름이라면 천길 땅속이라도, 만리 바다길이라도 웃으며 뛰어드는것이 바로 공화국의 현실이다.

하지만 현 남조선당국은 권력을 잡은 첫날부터 공화국 천만국민의 심장속에 자리잡은 신념의 기둥을 허물어보려고 눈뜨고는 차마 볼수 없는 비렬한 중상모독행위에 매달려왔다.

지난 2013년 3월 남조선군부가 공화국의 이 무나도 응당한것이다. 백과사전적인 지식과 끝없는 풍부한 투쟁경험, 인민들에 대한 불보다 뜨거

순수위목록》까지 작성해 놓았다는것이 드러났다. 광란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있던 시기에 발생한 이 도발행위는 집권한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던 현 남조선당국이 민족문제, 북남관계문제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가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았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보수패당은 그해 4월에 공화국인민들의 태양절경축분위기를 험담하면서 《체제정당성파시》니,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니 하는 악담을 늘어놓다 못해 백주에 서울한복판에서 반공장패무리들을 내몰아 동족대결집회를 벌려놓고 민족의 최고존엄을 엄중히 중상모독하는 천인공노할 만

행을 저질렀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최고존엄을 훼손시키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한자들과 부추긴자들에 대한 예고없는 보복행동을 개시하며 지금까지 감행한 크고 작은 모든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대하여 사죄할것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장을 보내었다.

민족의 이 서리발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보수패당은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도발행위에 더욱 미친듯이 매달렸다.

그 앞장에는 바로 민족반역자이고 패륜자인 박근혜가 서있었다. 박근혜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지 100일도 되기

전에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직접 걸고들며 《〈한〉 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박》을 하고있다고 공공연하게 뽐내었다. 심지어 북의 병진로선에 대해서까지 《새로운 도박의 시도》라느니 뭐니 하면서 《결코 성공할수 없을것》이라는 등으로 극히 무엄하게 망발하였다.

그는 그후에도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직접 걸고들면서 《공포정치》니, 《인권탄압》이니 하는 대결말언을 늘어놓았다. 지나온 북남관계력사를 돌이켜보아도 박근혜처럼 《대통령》 버거지 촌자가 직접 나서서 민족의 최고존엄을 시도 때도 없이 헐뜯은적은 일찌기 없었다. 그의 이러한 망동이 가뜩이나 파국으로 치닫고있는 북남관계악화를 부채질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엄중한

장을 조성한 기본요인 중의 하나라는것은 지난 3년의 나날이 잘 보여주 고있다.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대한 엄중한 모독행위는 올해에 들어와 최절정에 이르렀다. 남조선군부 호전광들은 미국상전의 지휘아래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작전계획 5015》니, 《참수작전》이니, 《평양점령》이니 하는것들을 공개적으로 떠들어대면서 저들의 목표가 바로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라는것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호전광들은 얼마전에는 미국상전의 지휘아래 전투폭격기편대군을 동원하여 《최고수뇌부의 집무실을 타격》한다는 극악무도한 망동이 가뜩이나 파국으로 치닫고있는 북남관계악화를 부채질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엄중한

비렬한 체제대결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천하무도한 역적질도 서슴지 않는 대결집단, 민족반역의 무리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지금 공화국의 천만국민은 민족의 태양, 운명의 태양에 감히 도전하는 전대미문의 특대형범죄행위를 감행한 남조선보수패당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의지에 넘쳐있다. 조선인민군 전선대원합부대장거리포병대는 이미 천하역적 박근혜와 그 패당에게 천인공노할 《핵심부타격》을 고안해내고 그 실행을 꿈꾸려 한 만고죄인들을 즉시적이고 가장 참혹한 형벌로 온 민족앞에서 가차없이 릉지처참해버리지 않는다면 악의 본거지인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에 징벌의 불세례를 들뜨우겠다는것을 최후통첩하였다.

남조선당국은 감히 민족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저들의 죄과가 얼마나 엄중한것인가에 대해 솟구치는 화염속에서 빠져리게 체험하게 될것이다. 신기복

일본에 제침의 문을 열어주는 쓸개빠진 행위

최근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군사적협력이 강화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일본해상 《자위대》막료장을 5년만에 끌어들이 《해군참모총장회담》이라는것을 벌려놓고 군사교류협력이니 뭐니 하며 속덕공론을 벌렸다. 한편 일본해상 《자위대》막료장은 남조선의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본부의장을 뒤끝방에서 만나 반공화국모의판도 벌리었다.

조선반도에서 심상치 않은 사태를 예고하는 남조선과 일본호전세력들의 모의가 아닐수 없다.

알려진것처럼 지난해말 남조선과 일본은 그 무슨 《합의》로 조선민주주의의 한이 서려있는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일렁뚱뚱 굶뻐버렸다. 국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시에 따라 집단적으로 감행된 성노예범죄를 군부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몇푼의 돈으로 호지부지 만들어놓은 그 《합의》에 대해 전 세계 조선민족과 함께 정의와 진리를 지향하는 인류가 분노를 터친것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합의》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떠들면서 이제는 모든것

이 다 해결이나 된듯이 어깨를 으쓱이며 세상에 보란듯이 제침의 길에 빠졌이 나서고있다.

일본해상 《자위대》의 막료장이 남조선을 행각하는것과 때를 같이하며 일본에서 안전보장관련법이 3월 29일부터 시행된것은 이에 대한 실증이다.

일미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조작된 안전보장관련법은 자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저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수 있는 《집단적자위권》행사가 포함돼있다. 또 일본은 위기징후만 있더라도 군대를 파견하고 공격차단명목으로 다른 나라에 선제타격도 가능해진다. 이 법안이 시행단계에 들어감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일미군사작전일체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척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금지되어온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 일본이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3월 29일 일본은 방위비를 지난해에 비해 1.5% 증가한 5조 541억원으로 확정했다. 2012년 12월 아베정권이 출현한 이후 4년 연속 늘어나 지난해 5조5천에 육박했던 방위비에산은 올해 처음으로

로 5조5천을 넘어서 역대 최대규모이다. 방위비의 대부분이 각종 군함들과 비행기, 탄도미사일 등에 쓸수 있는 이지스함을 늘리는데 쓰이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목적이 제침을 위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해외침략을 위해 만전을 가한 일본에게 있어서 방해로 되는것은 아무것도 없다. 남은것이란 제침의 구실뿐이다. 일본의 제침의 첫째목표는 조선반도이다.

쓸개빠진 남조선호전당국이 이러한 일본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반공화국대결모의를 벌린것은 백년속적 일본의 제침책동의 방아간에 물을 대주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망동이다.

문제는 이번의 남조선과 일본의 군사협력책동은 미국의 각본에 따라 벌어지고있는것이다.

전조선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동북아시아를 나아가서 세계를 제패하려는것은 어제도 오늘도 변하지 않은 미국의 야망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하수인들인 일본, 남조선과 3각군사동맹을 맺고 그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저들의 야망을 실현해 보려 하고있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호전세력들이 공화국을 반대하여 벌리는 대규모 모적인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소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정세하에 있다. 여기에 제침의 기회를 찾아 눈알을 돌리려 책동하고있는것은 미국의 부추김이 없는 생각할수 없다.

동족대결을 위해 미국의 사타구니에 맴돌며 북침전쟁의 광기를 부리다 못해 민족의 백년속적인 일본과 입맞추며 짝자공이하는 남조선호전당국의 반민족적책동은 그렇지 않아도 위험천만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남조선호전광들과 일본호전세력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반미대결전을 선포한 공화국의 목표가 단순히 미국만을 겨냥한것이 아니라 민족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청와대도, 우리 겨레에게 천추의 한을 남긴 일본사무라이들도 공화국의 조준경안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10대 《국회》와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 견제》의 명목으로 1997년부터 끊임없이 논의되어 오다가 지난해 5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국회법개정안》이 박근혜의 《거부권》행사와 그의 손발노릇을 한 《새누리당》에 의해 끝끝내 빛을 보지 못한것이 대표적 실례이다.

남조선에서 다가오는 20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19대 《국회》도 점차 막을 내려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현 《국회》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환멸은 이미 오래전에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된것은 독살스러운 박근혜의 독선과 전횡, 그에 손발노릇을 한 《새누리당》에 의해 제19대 《국회》가 명실공히 파쇼권력의 시너로, 일당독주주의의 무대로 전락되고말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 견제》의 명목으로 1997년부터 끊임없이 논의되어 오다가 지난해 5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국회법개정안》이 박근혜의 《거부권》행사와 그의 손발노릇을 한 《새누리당》에 의해 끝끝내 빛을 보지 못한것이 대표적 실례이다.

이른바 《일자리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재벌들의 배만 불리우는 《4대 개혁법》 통과를 위해 《국회》를 《식물국회》로, 남조선정치를 갈등과 대립, 싸움판으로 만든것도 현 집권세력들이다.

각계의 항의와 반대규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화국을 고립압살시키고 파쇼독재를 강화하려는 박근혜보수세력들의 독주와 횡포에 의해 《북인권법》, 《테로방지법》과 같은 동족대결, 파쇼적인 악법들이 강압조작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부정부패행위에서도 전례없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지나해 《새누리당》소속의 《국회》의원 두명이 한 철도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먹은 사실이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현 남조선 《정권》이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부정부패행위로 의원직을 박탈당한자는 14명이며 범죄행위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있는 의원은 18명, 각종 추문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 대상은 38명이나 된다. 그중 《새누리당》소속 의원이 파반수를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성범죄가 일상화되어 《새누리당》이라는 치욕의 락인을 받은 《새누리당》소속 의원들속에

서는 대구시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을 하고 먹자판에서 너기자를 성추행하는것과 같은 성범죄사건들도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이런 부정부패의 능수, 호색한들이 《국회》의원석에 틀고앉아 남조선정치를 주무르며 그 무슨 《청렴》과 《도덕성》에 대해 떠들 때 절대다수 근로인민들은 초보적인 생존권도 유지하기 어려워 불행과 고통속에 모대기가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으니 부패 《국회》, 썩은 정치하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악이 더욱 심각해지는것은 필연적이다.

지금 《새누리당》은 다음 《국회》에서의 독판치기를 위해 또다시 민심기만의 공약들을 내뱉으며 저들소속 후보들의 당선을 획책하고있다.

만일 다가오는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 파반수의석을 또다시 차지하게 된다면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독재권력을 옹호하고 부자들의 리익을 대변하며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썩은 《국회》로 다시 되고말것이다.

이것을 똑똑히 알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총선투쟁승리 범국민대회》등을 열고 《새누리당》심판투쟁에 한결같이 떨쳐 나서고있는것이다.

김명일

지난 3월 28일 박근혜가 남조선군사병들에게 그 무슨 《격려서신》을 보냈다고 한다. 그는 여기에서 《북의 무모한 도발과 전쟁위협》이니,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공화국을 악랄하게 헐뜯었다. 그런가하면 이날 국방부 장관 한민구는 《천무부대》를 예고없이 찾아가 《북이 군사도발위협을 지속》하고있다는니, 《적 도발시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니 뭐니 하면서 허세를 동주었다.

이날에 벌어진 상전과 줄개의 《2중창》추대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과 봉쇄압박책동에

꼬떡없이 초강경군사적 조치로 맞받아나가는 공화국의 위력에 질겁한 대결광들의 마지막발버둥질이다.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에 대처하여 얼마전 공화국에서는

죽음의 문턱에서 부리는 허세

신형대구경방사포 최종시험사격이 진행되었다. 마치 바늘귀를 꿰듯이 한치 오차도 없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신형대구경방사포 하나만 가지고도 청와대는 물론 남반부작전지대 대상물들을 흔적도 없이 초도화할수 있다는것이 최종시험

사격을 통해 명백히 증명되었다.

여기에 겁을 먹고 지금 남조선군안에서는 극도의 염전상상과 패배주의에 빠진 장교와 사병들이 술에 만취되어 사교를 일으키거나 무장탈

영하고 자살하는 현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바로 며칠전에도 경기도 련천군의 군사분계선일대에서 한 사병이 무장을 하고 탈영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남조선군사병들속에서 벌어지고있는 이러한 사

건들은 자위의 핵탄과 신형대구경방사포까지 실전배치한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앞에 어느 순간에 개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저들의 신세에 대한 불안과 자기들을 동족대결의 사지판으로 내

모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할수 있다. 박근혜와 한민구가 저마다 나서서 《북의 도발》이니, 《무한한 신뢰》니 뭐니 하면서 남조선군의 《사기》를 올려주려고 무진애를 쓰고있지만 그러한 추태가 염전

사상과 동요속에 헤매는 장교와 사병들의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하리라는것은 자명하다.

지금 공화국의 군대는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전선대원합부대 장거리포병대의 멸적의 기상에 발맞추어 극악한 동족대결의 무리들을 이 땅에서 씨도 없이 소멸해버릴 중오와 복수의 일념에 넘쳐있다.

박근혜와 한민구와 같은 대결미치광이들이 제아무리 입에 게거품을 물고 날릴수록 그것은 죽음을 앞둔자들의 마지막비명소리에 불과하다. 최석현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 사회

소식을 들으니 이남에서 사랑, 결혼, 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로부터 집을 포기하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세대》를 지나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 《7포세대》가 생겨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꿈과 희망의 포기, 심각한 사회적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간은 살아있는 한 절대로 희망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한 고대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격언을 나는 때때로 외워보곤 한다.

사람에게는 꿈과 희망이 중요하다. 세계적인 작곡가였던 베토벤이 귀가 완전히 먼 속에서도 교향곡 제9번 《환희》를 비롯한 수많은 명작을 창작해낸 것만 보아도 사람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꿈과 희망이 없으면 인생도 없다. 삶의 의욕을 잃고 생의 보람을 못 느끼게 되며 결국에는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이나 같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꿈과 희망이 있으면 청춘의 활기를 찾게 되고 꽃피는 나이로도 그것이 없는 삶에는 로쇠와 죽음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러고보면 꿈과 희망은 인간의 삶

에 활력을 주는 생명수, 생의 불씨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리치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꿈과 희망은 결국 래일에 대한 지향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사람들에게 이것이 없다면, 래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회에는 암울하고 침울한 공기가 흐르기 마련이며 생기를 잃고 활력을 잃게 된다. 그속에서 그 어떤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래라는 것도 한갓 허상일뿐이다.

이남에서 꿈과 희망을 제스스로 포기하는 현상이 만연되어 《7포세대》가 출현한 것은 그만큼 사회가 썩고 병들었으며 래일이 어둡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란 없다. 어느 누가 밝은 꿈과 희망을 안고 보다 휘황할 미래를 향해 살길 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러고싶어도 이남에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각박한 사회가 선사한 실업난, 생활난 등으로 하여 고독감, 적막감, 무력감에 싸이고 오늘에 대한 불안, 래일에 대한 불안, 비

관, 우울, 방황, 끝없는 모래길에 사람들은 자연히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구겨진 삶을 이어가기가 힘들어 인생마저 포기한다.

지난해 5월 경기도 부천에서 세자매가 《사는 게 힘들다. 화장해 버려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의 길을 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다. 사실 경기도는 내 고향이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세자매가 다같이 생을 버렸겠는가. 충격이 컸다.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이남에서는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한해에만도 1만 4000여명, 하루평균 40여명이 자살하며 그중에서도 로인,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곳이 다름아닌 이남이다. 활력과 꿈이 한창 넘치는 인생의 황금시대인 청년기에 모든 희망을 버리고 자살을 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어느 사회학자는 《자살은 사회를 향한 치열한 절규다.》라고 말한바 있다.

옳은 말이다. 이남에서 자살자들, 특

히 청소년 자살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있는 것은 사회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과 의리, 도덕과 같은 인간의 고상한 정신적 가치관은 찾아볼래야 볼 수 없고 오직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의 가치관이 지배되는 곳이 바로 이남이다. 《나》만을 위해, 돈을 위해 뒤흔박질하는 사회, 돈으로만 인간의 가치가 평가되고 돈을 위해서라면 부모형제, 부부 사이, 부모자식간에도 서슴없이 칼을 휘두르는 사회, 어른들이 아이들을 랍치하고 살해하고 어머니가 피덩어리 자식을 쓰레기처럼 내버리는 비인간적 행태들이 눈습하나 까딱없이 없어 자행되고 있는 사회.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사회이다. 인간성이 마비되고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꿈과 희망을 간직할 수 있고 마음껏 꽃피울 수 있겠는가.

생활의 토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회제도가 이렇듯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못 주는데다가 정치 또한 모든 꿈과 희망을 잃게 한다.

이남 집권자가 지난 《대선》 시기 내걸었던 《공약》 중의 하나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였다. 그에 많은 이남국민들이 현혹되었었다. 정말로 자신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이루어주겠는가 했다. 그런데 《반값등록금》은 그야말로 《미친 등록금》으로 되어버렸고 《서민복지》는 물건너가 버렸으며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들이 산다.》는 궤변말에 대기업, 자본가들의 끝없는 탐욕만을 채워주는데 정치가 부무했다. 그러니 무거운 학비 부담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짓누르고 갈수록 겹치는 생활난은 사람들의 모든 기대를 빼앗아갔다. 한가닥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막대한 빚까지 걸머지면서 고달프게 대학공부를 했던 졸업생에서 실업자로 바뀌는 것이 오늘의 비참한 현실이다. 교육에서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학비부담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하니 매해 학업포기 학생수가 무려 7만여명이나 된다.

그뿐인가. 지금까지도 그가 《일자리창출》의 미명하에 생떼를 쓰며 고집하는 《로동개혁》이라는 것은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임금삭감으로 서민들을 죽음의 구렁렁이에 몰아넣고 얼마 안되는 대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집권자가 말하던 《내 꿈》이라는 것은 결국 있는 자, 권력자들만의 호강이었던 것이다.

《저희들은 서민들의 처지를 바꾸며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세》를 만드는 정치인들입니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과 그들이 내세운 《준비된 여성대통령》이 부담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짓누르고 갈수록 겹치는 생활난은 사람들의 모든 기대를 빼앗아갔다. 한가닥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막대한 빚까지 걸머지면서 고달프게 대학공부를 했던 졸업생에서 실업자로 바뀌는 것이 오늘의 비참한 현실이다. 교육에서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학비부담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하니 매해 학업포기 학생수가 무려 7만여명이나 된다.

그뿐인가. 지금까지도 그가 《일자리창출》의 미명하에 생떼를 쓰며 고집하는 《로동개혁》이라는 것은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임금삭감으로 서민들을 죽음의 구렁렁이에 몰아넣고 얼마 안되는 대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집권자가 말하던 《내 꿈》이라는 것은 결국 있는 자, 권력자들만의 호강이었던 것이다.

《저희들은 서민들의 처지를 바꾸며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세》를 만드는 정치인들입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은 고스란히 바다에 수장되고 《어린이집》에서의 폭행사건, 학교폭력사건, 늘어나는 자살자, 청년실업자 등에는 눈먼 소경, 꿀떡은 병어리이니 미래의 주인공들이 아이들은 꽃망울도 피어보기 전에 짓밟히고 청년들은 자기를 상실하고있다. 동족대결의 현혹종이나 멸절한 사람들에게도 《종북》의 딱지를 붙여 족쇄를 채우

면서 들여다보았고 쓰다듬기도 하고 두드려보는 빈자루(박근혜)는 때때로 하인들의 발을 닦는데 쓰는 걸레로도 리용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이 자루한테 《큰 행운》이 차려졌다.

집주인(미국)이 자루에 금화를 가득 넣어 돈케안에 귀중하게 간수하였던 것이다. 주인을 찾아온 손님들은 의례히 자루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자루가 벌려졌을 때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며 아양을 떨

면서 들여다보았고 쓰다듬기도 하고 두드려보는 빈자루(박근혜)는 때때로 하인들의 발을 닦는데 쓰는 걸레로도 리용되었다.

그러면 모두가 입을 해

고 폭압정치, 공포정치로 사회를 서늘케 하는데다 미국의 삼살계가 되어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까지 몰아오면서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남사회에서는 도대체 래일을 볼 수 없다.

그러니 이남국민들이 애당초 꿈과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7포세대》의 출현은 바로 이남의 썩은 사회제도와 정치 탓이다.

그러면서도 박근혜는 썩하면 분계선너머 그 누구의 《인권》이니, 《생활난》이니 하며 떠들어댄다.

까마귀 백로 홍보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이북은 향기와 기쁨과 꿈이 넘치는 나라이다. 령도자가 인민의 모든 꿈을 매일매일 회한한 현실로 만들어주고있다. 그래서 이 땅에선 모든 꿈이 이루어진다는 노래소리가 높다.

인간사랑의 아름다운 화원속에 문명을 꽃피우며 보다 더 행복할 래일을 마중해가는 전도양양한 북과 《7포세대》까지 등장하며 《헬조선》이 유행어로 되고있는 이남, 과연 어디에 민족의 전도가 있고 미래가 있는가.

이남은 캄캄하고 이북은 밝다.

재가나다동포 김정옥

제주도는 오늘도 웨친다

남조선에서 제주도 4.3인 민봉기가 있는 때로부터 68년이 되어온다.

돌이켜보면 제주도 4.3인민봉기는 다시는 외세의 식민지노예로 살지 않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불굴의 기상을 피로써 과시한 의로운 투쟁이었다. 1948년 정초부터 미국과 그 주구 리승만도당의 매국적인 《5.10방국단독선거》를 반대하여 줄기차게 벌어진 제주도인민들의 투쟁은 마침내 영웅적인 4.3인민봉기로 확대발전되었다.

《〈단독선거〉 분쇄하라!》, 《미군은 즉시 철거하라!》, 《미제의 주구를 타도하라》, 《조선통일 만세!》 등의 구호말에 벌어진 이 투쟁에는 전체 도민 30만명중 24만명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적극 참가하였다.

이에 절절한 미국과 리승만도당은 수많은 무력을 동원하여 제주도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해나섰으며 제주도를 피의 섬으로 만들었다.

《5.10방국단독선거》를 파탄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제주도 4.3인민봉기는 미국의 식민지통치와 민족분열책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불의와 매국에 항거하는 남조선인민들의 굳센 기개를 힘있게 시위하였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자주적이고 통일된 땅에서 온 겨레가 함께 행복하게 살려던 항쟁용사들의 넋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대조선침략정책, 그에 아부추종해온 친미보수세력의 파쇼독재, 동족대결책동에 기인된다.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지배, 대조선침략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최근 미국은 공화국의 자위적군력강화를 약탈하게 끌고들면서 남조선의

반공화국제세소동과 북침전쟁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지배, 악랄한 북침전쟁도발책동은 상전의 대조선침략정책에 적극 아부추종하는 박근혜보수집권세력의 친미사대행위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집권하자마자 악명높은 《유신》 파쇼독재체제를 부활시켜 남조선을 민주, 민권의 황무지로 만든 박근혜보수패당은 《동맹강화》의 간판말에 침략적인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모해하고 해치기 위한 반공화국모략과 군사적도발책동에 적극 매달려왔다.

지금 박근혜보수세력은 미국과 야합하여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북침을 가상한 《독수리》 핵합동진상연습을 실시의 분위기 속에서 감행하고있으며 지어 공화국의 최고존엄

을 해치려는 친인공노할 흉계까지 꾸미는 극악무도한 책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하기에 남조선에서는 미국의 위협치만한 북침전쟁도발책동과 반공화국적대시정책, 사대매국노들의 파쇼독재강화와 동족대결책동을 반대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고조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대조선적대시정책, 매국노들의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책동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나라의 평화와 조국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실제 체험을 통해 깨닫고 그것을 더는 용납치 않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확고한 의지의 분출이다.

제주도는 오늘도 웨치고있다. 자주, 민주,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외세를 배격하고 사대매국노들을 쓸어버려야 한다고.

김광률

인권지옥에서 울리는 소리

자식을 죽이는 부모

— 2008년 영진이가 살해되었다. 계모 A씨는 그해 2월 5일 저녁 집에서 영진이를 여러 도구로 폭행했고 그렇게 맞아 죽어가는 아이를 방치했다. 다음날 아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영진이의 시신을 종이지함에 넣어 친정집이 있는 경북 경주시로 갔다. 여기서 영진이를 폐도람통에 넣은 다음 휘발유를 뿌려 시신을 불태웠다. 계모는 밤에 집으로 돌아와 영진이가 오늘 오락을 하러간 후 돌아오지 않고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 그리고 《MBC》 방

송에 출현해 《실종》된 영진이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

여섯살 난 영진이의 직접적인 죽음은 내장파열에 의한 출혈이었다. 열골과 등, 머리 등 온몸에 상처가 나있었다. 《밥을 잘 안먹고 토한다는 이유로 어린 아들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 등이 잔인하고 반인륜적》이었다.

— 2013년말 B씨는 14개

월인 아이를 팔로 입양했다. 이미 두명의 자녀를 키우고있던 그녀는 《정부》가 지원하는 《세녀지원특혜》를 받기 위해 아이를 입양한 것으로 보인다. 가끔 이 아이에게 손찌검을 하곤 했다. B씨는 2014년 10월 채권자의 빚독촉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자 길이 75cm에 두께 2.7cm인 옷걸이 지지대로 넘어지는 아이를 일으켜세우면서 머리, 다리, 엉덩이, 팔

등 전신을 폭행했다. 아이가 양손을 빌며 잘못했다고 수차례 말했지만 폭행은 계속되었다. B씨는 분이 풀리지 않아 부엌에서 빨간 고추를 1cm 크기로 잘라 아이에게 강제로 먹였고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기고는 10분동안 찬물을 뿌려댔다. 결국 아이는 다음날 오후에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망 당시 전체 혈액의 5분의 1 이상을 잃은 상태였다. 심장속에도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남조선잡지 《시사저널》 2016년 1월 5일호에서 전재)

어느 한 집현관의 한 쪽구석에 외로이 놓여있던 빈자루(박근혜)는 때때로 하인들의 발을 닦는데 쓰는 걸레로도 리용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이 자루한테 《큰 행운》이 차려졌다.

김광률

이제는 제법 상태질을 하며 꺼리낌없이 시비를 가르기도 하고 앞일을 《예언》하기도 하였으며 저 하늘의 태양을 가리울수 있다고 헛나발을 불기도 하였다.

그러면 모두가 입을 해

벌리고 귀를 바짝 세우고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칠 세라 듣는판이었다.

자루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든 상관없이 손님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눈이 등그래지고 야야하고 감탄할뿐이었다.

그러나 자루의 이 《행운》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 주인이 금전을 깡그리 털어내자 자루는 다시 이전의 자리에 놓여지고 누구나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었다.

김강철

《수저게임》에 비끼 슬픈 사회상

최근 남조선에서 《수저게임》이라는 것이 사람들속에서 최대의 인기라고 한다.

그 리유는 이 《수저게임》이라는 것이 지금 남조선에서 유행되고있는 《수저론》의 법칙을 그대로 본딴 것이기 때문이다. 《수저론》은 사람들이

이래어날 때 출신성분에 따라 입에 물고나온 수저가 다르며 그 수저의 질이 곧 그들의 앞날이며 생활이라는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남조선사회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저게임》은 특히 청소년들속에서 폭발적으로 유행되고있는 것이다.

놀이에서는 《금수저》로 시작한 사람은 《금수저》로, 《흙수저》로 시작한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역시 《흙수저》가 된다.

청년들은 오락에서만이 라도 《금수저》가 되어 보겠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그것은 헛된 몸부림이다.

랭혹한 남조선사회현실을 반영한 규칙이어서 도저히 달리될 수 없기 때문

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업에서 벗어날수 없는 《흙수저》, 《통수저》들의 비참한 처지, 1%의 특권층만이 《살기 좋은 천국》이고 99% 절대다수 인민들에게는 인간생지옥인 남조선사회의 참혹상이 그대로 보이는 《수저게임》인 것이다.

《서울프도록 랭정한 현실을 그대로 빚낸 게임이었다.》

이는 《수저게임》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정확한 평가이다.

본사기자 황진옥

